

2025 년 세계 장애인의 날 마샬, 파트나



마샬(인도 비하르 주 파트나 소재 노틀담 수녀회 사회보건부문)은 등록된 비정부 자선 단체로서, 장애인(PwDs)의 지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고 모든 개인이 존중, 독립, 희망 속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헌신적인 기부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본 단체는 동 삼파란의 라크사울, 서 삼파란의 가히리, 멩거의 자말푸르, 다질링의 섬벽 등 모든 단위체에서 장애 아동 및 성인을 위한 포용적이고 양육적이며 존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사명을 확대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 마샬의 네 개 단위체는 열정과 존엄성, 공동체의 참여 속에 세계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각 단위체는 고유한 방식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포용, 존중, 역량 강화라는 공통된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단위체에서 장애 아동과 성인, 부모, 보호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한 대규모의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지도자, 교사, 협력 기관의 수녀들, 정부 관계자들도 기념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축제는 전통 등불 점화식과 기도로 시작되어 모든 참가자의 존엄성과 존재를 기렸습니다.

문화 공연은 축제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장애 아동들은 시 낭송, 노래, 춤, 역할극을 자신 있게 선보이며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기회와 격려가 주어지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 및 지역사회 단체들도 사회적 수용, 포용적 교육, 장애인 지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촛극을 선보였습니다.

게임과 상호작용 활동으로 모든 장소가 활기를 띠었으며 부모와 아이들의 열띤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담요와 작은 기념품 같은 정성 어린 감사의 표시가 장애 아동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하루에 기쁨과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는 협력 학교 학생들이 직접 장애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우정과 포용의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마련된 공동 식사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과 어린이, 관계자들이 화합과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함께 축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